

『韓非子』 寓言의 일부 修辭法에 대한 小考

韓 永 杰*

Ⅰ 국문초록 Ⅰ

한비자의 우언이 선진우언의 대표작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수사법의 사용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 춘추전국시대는 중국 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수사법이 활발하게 사용된 시대이다. 백가쟁명이라는 사상논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제자들은 추상적인 이치를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우언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고 내용을 흥미롭게 하여 전달력과 설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자들은 수사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장자와 한비자는 수사법을 비교적 능숙하게 사용한 인물이다. 특히 한비자가 사용한 수사법은 매우 다양하고 기교적이었는데, 이는 한비자의 우언을 풍격이 다양하게 하고 논지가 예리하게 하였다. 또한 문장을 흥미롭고도 아름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술성도 풍부하게 하였다. 특히 한비자가 사용한 수사법의 유형은 제자들 중에서도 단연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비자 우언에서 사용한 수사법에 대한 고찰은 『한비자』가 철학서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수사법 사용현상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한비자우언, 수사법, 의인법, 열거법, 문답법, 연쇄법

Ⅰ 목 차 Ⅰ

I. 緒 論	IV. 問答法
II. 擬人法	V. 連鎖法
III. 列舉法	VI. 結 論

I. 緒 論

“修辭라는 것은 일정한 교제 목적과 언어 환경에 적응하고, 적절한 언어 자료를 사용하여 언어의 전달효과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kaneijie@daum.net

를 높이는 언어행위”¹⁾로서 우언의 인물형상을 부각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수사법의 운용에 따라 인물형상의 부각과 우언의 전달은 정도가 서로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수사법은 서주시대의 『시경』과 『상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다. 수사법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들이 제각각 자신들의 학술사상을 펴기 위하여 각 제후국에 유세하며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고대 중국에 있어서……修辭意識의 발흥을 이끈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²⁾ 제자들은 백가쟁명이라는 사상논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문장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수사법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제자들 중에서 수사법을 비교적 능숙하게 사용한 사람은 장자와 한비자이다. 특히 한비자는 “상당한 언어기교의 활용과 함께 절제된 수사기법을 발휘함으로써 제자산문 중에서 독특한 유형을 창조해 내고 있다는 점이 여타의 제자산문들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풍격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³⁾

이처럼 『한비자』의 우언을 『장자』의 우언과 더불어 先秦寓言의 쌍벽으로 군림할 수 있게 하는 데 수사법의 사용이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비자』 우언의 수사학적 연구는 적지 않다. 한국에서는 송승아가 『韓非子』 寓言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에서 비유법·대비법·설의법·인용법·점층법 등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지혜가 『『한비자』 우언에 나타난 표현기법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에서 대구법·인용법·반복법·비유법·반문법 등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 분석했으며, 김원중이 『韓非子』를 통해서 본 韓非子의 글쓰기 전략에 관한 몇 가지 검토, 『중국학논총』 49, 2016.에서 비유법에 대해 약간 다루었다. 중국에서는 熊浩莉가 『韓非子』 比喻類型探析, 『重慶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 2013.에서 비유법의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陳強弟가 『韓非子』 說理修辭研究, 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에서 比喻와 徵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擬人法·列舉法·問答法·連鎖法⁴⁾에 대한 고찰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연구범주를 넓혀 법가적인 우언과의 연관 속에서 『한비자』 우언에서 사용된 의인법·열거법·문답법·연쇄법 등 수사법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또한 법가사상의 설득력 향상을 위해 사용한 수사법이 어떻게 우언의 예술적 효과를 향상시켰는지 살펴보면서 이러한 고찰이 『한비자』 우언에 대한 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1) 辛菊(編著), 『現代漢語語法修辭研究』, 太原: 書海出版社, 2003, 165쪽, “修辭是適應一定的交際目的和語言環境, 運用恰當的語言材料, 以提高語言的表達效果的語言行爲.”

2) 文承勇, 「韓非子에 나타난 修辭意識의 形成 淵源 考」, 『수사학』 16, 2012, 98쪽.

3) 김원중, 「『韓非子』를 통해서 본 韓非子의 글쓰기 전략에 관한 몇 가지 검토」, 『중국학논총』 49, 2016, 102쪽.

4) 의인법은 비록 한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수사법이 아니나 장자로부터 계승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열거법·문답법·연쇄법은 한비자의 우언에서 비유법 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수사법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의인법·열거법·문답법·연쇄법을 이번 고찰의 대상으로 선택한다.

II. 擬人法

의인법이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나 동식물 또는 자연 현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에 사람의 생명과 속성을 부여하는 수사법을 말한다.”⁵⁾ 의인법은 비록 현실성과 실용성이 결핍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문장에 묘미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의인법은 순문학적인 성격이 결핍한 諸子散文에 문학을 부여하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한비자』 우언은 歷史故事가 주류를 이루고 神話故事·動植物故事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우언에서 부각한 형상도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고, 의인화된 비인격체의 형상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理性과 實用을 중시하는 법가사상 때문이다.

법치를 주장하는 법가사상은 매우 현실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사상이다. 그러므로 법가는 비인격체보다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강한 역사인물을 우언의 인물형상으로 자주 사용하게 된다.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도 자연히 우언의 제재로 역사고사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역사고사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 혹은 실존하는 인물들의 사례를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실제사건과 실존인물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얻은 경험교훈은 설득력이 매우 강하므로 『한비자』의 우언에서 역사고사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한편 『한비자』의 우언에서 비인격체를 우언의 형상으로 부각한 우언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당연히 擬人法을 사용한 우언도 매우 적다. 그러나 『장자』의 우언이 선진우언의 높은 수준을 대표하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던 의인법을 『한비자』가 계승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中國文學史에서 의인화한 비인격체 형상은 우언의 기원으로 알려진 上古時期의 신화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山海經』에 수록된 신화인 ‘精衛填海’, ‘後羿射日’ 등에서 모두 비인격체를 의인화한 수사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신화의 서술방식과 함께 先秦散文의 萌芽 단계인 甲骨卜辭와 銅器銘文을 거쳐 『시경』의 寓言詩에 의해 계승된다.

『시경』에서 의인화한 동물형상은 「豳風·鸛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시가의 특성상 내용이 매우 빈약하나 의인법을 사용한 최초의 우언시라는 점은 분명하다.

의인법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장자』로부터 시작된다. 『장자』는 신화의 제재를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인격체를 의인화하는 의인법도 계승한다. 의인법의 사용은 『장자』의 우언이 선진우언의 높은 수준을 대표하게 하였다.

의인법은 『장자』를 거쳐 『한비자』에 의해 계승된다. 『장자』와 『한비자』를 비교해보면 많은 면에서 계승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재에 있어서 『한비자』는 ‘逆旅二妾’, ‘三虱相訟’, ‘魯人身善織屨’ 등과 같이 『장자』에서 유래된 제재를 많이 계승하였다. 이외에도 ‘宋人’ 등 인물형상과 의인법 등 수사법도 계승하였다. 비록 『한비자』에서 사용된 의인법이 그다지 많지 않으나, 장자의 의인법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김옥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미음사, 2002, 134쪽.

『한비자』의 우언을 살펴보면 동물형상은 적지 않다. 그러나 동물을 의인화한 우언은 ‘潤澤之蛇’(「說林上」), ‘三虱爭訟’(「說林下」) 등 불과 몇 편밖에 안 된다. 그럼 먼저 ‘潤澤之蛇’를 살펴보자.

치이자피가 전성자를 섬겼다. 전성자가 제나라를 떠나 연나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치이자피는 통관 감찰을 짊어지고 뒤를 따라갔다. 망읍에 이르러 자피가 말하기를 “당신은 설마 마른 연못의 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연못이 말랐는데, 뱀이 옮겨가려고 하였습니다. 작은 뱀이 큰 뱀에게 말하기를 ‘자네가 앞장서가고, 내가 자네 뒤를 따라가면 사람들은 뱀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자네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서로 꼬리를 물고, 자네가 나를 등에 업고 가면 사람들은 나를 신령이라고 여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뱀들은 서로 꼬리를 물고, 큰 뱀이 작은 뱀을 등에 업고 큰 길을 건너갔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피하며 ‘신령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용모가 준수해 보이시고, 저는 추하게 보입니다. 당신을 저의 상객으로 모신다면 천승 나라의 군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저의 시종으로 삼는다면 저를 만승 나라의 경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의 시종이 되는 편이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전성자가 통관 감찰을 짊어지고 자피를 수행하였다. 여인숙에 이르니 여인숙의 주인이 그들을 매우 정중하게 접대하였는데, 술과 고기도 올렸다.⁶⁾

위의 문장은 의인화한 뱀을 주인공으로 다룬 이야기를 치이자피와 전성자의 대화에 삽입한 우언이다. 여기에서 한비자는 먼저 의인법을 사용하여 뱀을 애증이 엇갈리게 묘사한다. 그리고 이렇게 의인화한 뱀을 치이자피에 비유하고, 뱀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을 전성자에 비유하여 치이자피의 교묘한 속임수에 감쪽같이 당하는 전성자의 무능을 풍자한다. 이는 “사물의 본질적인 특징 및 그들의 내재적인 관계를 드러내고 형상화하는 일종의 수단”으로서⁷⁾ 생동감이 넘쳐흘러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예술성도 향상시킨다. 아울러 신하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군주도 속일 수 있다는 이치와 신하를 다스리는 ‘术’의 중요성도 역설하였다.

다음은 ‘三虱爭訟’을 살펴보자.

세 마리 이가 서로 다투었다. 어떤 이가 지나가다가 말하기를 “다투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세 마리 이가 말하기를 “살 진 곳을 다투다.”라고 하였다. 지나가던 이가 말하기를 “자네들은 낯일 제삿날이 되면 띠풀에 돼지와 함께 불살라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어찌 살 진 곳을 다투는 것을 걱정하는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세 마리 이는 서로 모여들어 돼지의 피를 빨아먹었다. 돼지가 살이 빠지게 되어서 사람들은 돼지를 죽이지 않았다.⁸⁾

6) 韓非子(著), 張覺(譯著), 『韓非子全譯』, 「說林上」,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2, 369쪽, “鴟夷子皮事田成子, 田成子去齊, 走而之燕, 鴟夷子皮負傳而從. 至望邑, 子皮曰: 子獨不聞潤澤之蛇乎? 澤潤, 蛇將徙. 有小蛇謂大蛇曰: 子行而我隨之, 人以爲蛇之行者耳, 必有殺子者, 不如相銜負我以行, 人以我爲神君也. 乃相銜負以越公道. 人皆避之, 曰: 神君也. 今子美而我惡, 以子爲我上客, 千乘之君也; 以子爲我使者, 萬乘之卿也. 子不如爲我舍人. 田成子因負傳而隨之. 至逆旅, 逆旅之君待之甚敬, 因獻酒肉.”

7) 楊鴻儒 著, 『當代中國修辭學』, 北京: 中國世界語出版社, 1997, 389쪽, “使事物的本質特點及它們的內在關係外露和形象化的一種手段.”

위의 문장에서는 의인화한 세 마리 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고 신하를 다루는 기술인 ‘術’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여기에서 한비자는 먼저 세 마리 이를 의인화하여 사람처럼 말하고 다투게 한다. 그다음 의인화한 세 마리 이를 신하들에 비유하고, 돼지를 군주에 비유하여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로 물고 뜯는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풍자한다. 의인법과 비유법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 우언은 “독자들로 하여금 나타내는 사물에 대해 선명한 인상을 갖게 하고, 저자가 사물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느끼게 한다.”⁹⁾ 또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로 물고 뜯을 뿐만 아니라, 군주마저 해치는 간신들에 대한 한비자의 치솟는 혐오를 절실히 느낄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한비자는 “군주가 신비감을 잃으면 (신하들이) 호랑이처럼 뒤를 노리게 되고, 군주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호랑이는 개들을 불러 모으게 되며, 군주가 일찌감치 그것을 막지 못하면 개들은 끝없이 많아질 것이며, 호랑이가 무리를 이루면 그 군주를 죽일 것이다.”¹⁰⁾ 우의를 시사하였다.

의인법은 이치를 설명할 때 현실성과 실용성이 결핍하다는 단점으로 『한비자』의 우언에서 드물게 사용된 수사법이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비자』가 의인법을 사용한 것은 추상적인 이치를 재밌게 나타내고, 직언직설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비자』의 우언은 의인법을 사용하여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풍자”¹¹⁾하였다. 이는 추상적인 이론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표현하여 설득력 향상의 효과를 거둔다.

Ⅲ. 列擧法

“列擧法은 의미에서 비슷하거나 동일한 낱말 또는 어구나 문장을 길게 나열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나열법 이라고도 일컫는 이 수사법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덧붙여 설명할 필요가 있거나 형상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할 때 주로 쓴다.”¹²⁾

열거법은 구조적으로 대구법과 매우 비슷하여 자칫하면 헷갈릴 수 있다. 이에 열거법을 고찰하기 전에 먼저 열거법과 대구법의 차이점을 짚어가고자 한다.

열거법과 대구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열거법은 두 개 이상의 구절을 나란히 배열한 것이지만, 대구법은 두 개의 단어 혹은 구절을 나란히 배열한 것이다. 또한 대구법은 구조와 글자 수를 따지지만, 열거법은 글자 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8) 韓非子(著), 張覺(譯著), 『韓非子全譯』, 「說林下」,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2, 402쪽, “三虱食彘相與訟, 一虱過之, 曰: 訟者奚說? 三虱曰: 爭肥饒之地. 一虱曰: 若亦不患臘之至而茅之燥耳, 其又奚患? 於是乃相與聚噉其母而食之. 彘臠, 人乃弗殺.”

9) 周靖, 『現代漢語』,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5, 300~301쪽, “使讀者對所表達的事物有鮮明的印象, 感受到作者對事物的態度和感情.”

10) 韓非子(著), 張覺(譯著), 『韓非子全譯』, 「揚權」,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2, 101쪽, “主失其神, 虎隨其後. 主上不知, 虎將爲狗. 主不蚤止, 狗益無已. 虎成其群, 以弑其母.”

11) 문승용, 앞의 논문, 113쪽.

12) 김옥동, 앞의 책, 236쪽.

열거법은 『한비자』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된 수사법으로, 章滄授는 이에 대해 “한비는 排比羅列에 뛰어났다.”고¹³⁾ 평가하였다. 『한비자』에서 사용한 열거법을 살펴보면 크게 단문열거법과 복문열거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단문열거법은 구조와 어조가 비슷하고 의미가 서로 연관되는 두 개 이상의 구절이 각각 하나의 구절로 이루어진 수사법이다. 그럼 그 예를 살펴보자.

월나라가 이미 오나라와 싸워 이긴 후 또 초나라에게 군사를 빌려 진나라를 치려고 하였다. 좌사 의상이 초왕에게 말하기를 “월나라가 오나라를 격파하였으나 뛰어난 호걸들이 죽고, 정예병들이 다 없어졌으며, 갑옷과 무기도 손상되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의 군사를 빌려 진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들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 월나라와 함께 오나라를 나누어 갖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초왕은 “좋다.”라고 말하고, 군사를 일으켜 월나라 군대를 추격하였다. 월왕이 노하여 쫓아오는 초나라 군대를 요격하려고 하였다. 대부 문종이 말하기를 “요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호걸들이 다 죽고, 갑옷과 무기도 손상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초나라와 싸우게 되면 반드시 싸워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뇌물을 주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월나라는 노산 북쪽의 오백 리 땅을 초나라에 뇌물로 주었다.¹⁴⁾

위의 문장에서 단문열거법은 “豪士死, 銳卒盡, 大甲傷.”이다. 여기에서 한비자는 세 개의 단어를 연이어 배열하는 단문열거법을 사용하여 오나라와의 전투에서 승전한 월나라의 허상을 시가적인 리듬 속에서 형상적으로 반영한다. 이는 글이 거침없고 말하는 기세가 당당하여 설득력이 매우 강하다. 또한 시가적인 효과도 지니고 있어 작품의 예술성도 향상시킨다. 여기에서 한비자는 문종의 간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월왕의 인물형상을 통하여 “군주가 사납고 고집이 세서 부드럽지 않으며, 간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승부욕이 강하며, 사직을 돌보지 않고 경솔하게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할 경우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¹⁵⁾ 우의를 설명하였다.

2. 복문열거법은 구조와 어조가 비슷하고 의미가 서로 연관되는 두 개 이상의 구절이 각각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구절로 이루어진 수사법이다. 그럼 그 예를 살펴보자.

월왕이 대부 문종에게 묻기를 “내가 오나라를 토벌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문종이 대답하기를 “가능합니다. 우리의 상은 후하고 틀림없이 믿음이 있으며, 벌은 엄하고 반드시 실행됩니다. 군주께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한번 궁궐에 불을 질러 시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라고 하

13) 章滄授, 「論韓非子的說理藝術」, 『阜陽師院學報(社會科學版)』 2, 1987, 57쪽, “韓非說理最擅長於排比羅列.”

14) 韓非子(著), 張覺(譯著), 앞의 책, 413쪽, “越已勝吳, 又索卒於荆而攻晉. 左史倚相謂荆王曰: 夫越破吳, 豪士死, 銳卒盡, 大甲傷. 今又索卒以攻晉, 示我不病也. 不如起師與分吳. 荆王曰: 善. 因起師而從越. 越王怒, 將擊之. 大夫種曰: 不可. 吾豪士盡, 大甲傷. 我與戰, 必不克. 不如賂之. 乃割露山之陰五百裏以賂之.”

15) 韓非子(著), 張覺(譯著), 『韓非子全譯』, 「亡征」,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2, 214쪽, “狠剛而不和, 復諫而好勝, 不顧社稷而輕爲自信者, 可亡也.”

었다. 그래서 궁궐에 불을 질렀는데, 누구도 그것을 끄고자 하지 않았다. 이에 월왕이 명령을 내려 말하기를 “사람들 중에 불을 끄다가 죽은 자는 적과 싸우다가 죽은 기준에 맞추어 상을 주고, 불을 끄다가 죽지 않은 자는 적과 싸워서 이긴 기준에 맞추어 상을 주며, 불을 끄는 데 참여하지 않은 자는 행복하거나 도망간 기준에 맞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 중에 온 몸에 진흙을 바르고, 젖은 옷을 쓰고 불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좌우 쪽에 각각 삼천 명씩 있었다. 이것으로부터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는 형세를 알게 되었다.¹⁶⁾

위의 문장은 단문열거법과 복문열거법이 조화롭게 결합된 우언이다. 여기에서 “人之救火者死，比死敵之賞；救火而不死者，比勝敵之賞；不救火者，比降北之罪”는 복문열거법이고, “塗其體，被濡衣”와 “左三千人，右三千人”은 단문대구법이다. 한비자는 딱딱하고도 무미건조한 상벌의 규정과 위엄을 시가적인 감흥 속에서 감칠맛 있게 묘사하여 설득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둔다. 또한 열거법과 대구법의 조화로운 사용을 통하여 “상과 칭찬이 경미하거나 기만 할 경우 아랫사람은 군주를 위해 이바지하려 하지 않지만, 상과 칭찬을 후하게 하거나 틀림없이 믿음이 있을 경우 아랫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¹⁷⁾ 우의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한비자』가 비슷한 어구나 문장을 길게 나열하는 열거법을 사용한 것은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강조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는 시가적인 리듬감이 있어 『한비자』의 우언을 흥미롭게 하고, 우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법가적인 이치를 형상적이고 조리가 있게 설명할 수 있어 설득력이 매우 강하다.

IV. 問答法

問答法은¹⁸⁾ 問答法과 自問自答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問答法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형식을 취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이 수사법에서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화자가 청자나 독자로 삼고 있는 가상의 인물이다. 의문문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설의법과 비슷하지만, 그 질문에 대하여 직접 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설의법과 다르다.”¹⁹⁾

문답법은 제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한 수사법으로, 『한비자』의 우언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문답법을 사용한 우언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남들이 다 아는 질문을 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직접 말하지 않고 청자가 스스로 깨닫게 한다. 또한 질문이 간단명료하고 알기 쉬워 화자가 일부러 답하지 않아도 청자가 충분히

16) 韓非子(著), 張覺(譯著), 『韓非子全譯』, 「內儲說上」,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2, 505쪽, “越王問於大夫文種曰: 吾欲伐吳, 可乎? 對曰: 可矣. 吾賞厚而信, 罰嚴而必. 君欲知之, 何不試焚宮室? 於是遂焚宮室, 人莫救之. 乃下令曰: 人之救火者死, 比死敵之賞; 救火而不死者, 比勝敵之賞; 不救火者, 比降北之罪. 人之塗其體, 被濡衣而走火者, 左三千人, 右三千人. 此知必勝之勢也.”

17) 위의 책, 475쪽, “賞譽薄而謾者下不用也, 賞譽厚而信者下輕死.”

18) 중국수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問答法과 自問自答法을 통합하여 設問이라고 하는데, 본고에서도 편의상 問答法과 自問自答法을 통합하여 問答法이라고 한다.

19) 김옥동, 앞의 책, 308쪽.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한비자가 상당한 논리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구사하기 힘든 것으로……인간의 심리에 주목하여 사물의 본질과 규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 논리의 허점과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²⁰⁾ 그럼 그 예를 살펴보자.

방공이 태자와 함께 인질로 한단에 가게 되었다. 방공이 위왕에게 말하기를 “지금 한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한다면 왕께서 그것을 믿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방공이 또 말하기를 “두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한다면 왕께서 그것을 믿겠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 방공이 또 다시 말하기를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한다면 왕께서 그것을 믿겠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였다. 방공이 말하기를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호랑이가 있는 것으로 믿게 됩니다. 지금 한단부터 위나라까지의 거리는 여기에서 시장까지 거리보다 훨씬 먼데, 저를 비난하는 자가 세 사람보다 많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왕께서 이러한 점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방공이 한단으로부터 돌아온 후 결국 왕을 다시 만나 볼 수 없었다.²¹⁾

위의 문장에서 한비자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신하를 다스리는 기술인 ‘術’ 즉 “신하의 행동을 보거나 신하의 말을 듣는 데 있어 여러 방면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진실을 들을 수 없다.”²²⁾ 우의를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우언의 주인공인 방공은 호랑이가 시장에 나타났다는 질문을 반복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될 것이라는 이치를 스스로 왕이 깨닫게 한다. 비록 방공의 질문이 매우 통속적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 답답해 보이는 질문 속에는 자신의 앞날을 근심하는 강하고 세찬 감정이 담겨져 있어 독자들의 심금을 울린다. 아울러 통속적이고 답답해 보이는 문장 속에 자신의 강하고 세찬 감정을 담아 비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수법은 『한비자』 글쓰기 방법의 특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2. “自問自答法은 스스로 물음을 던진 뒤 스스로 답을 제시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의문문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설의법이나 문답법과 비슷하지만, 화자가 직접 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문답법과는 조금 다르다.”²³⁾

자문자답법은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문장의 끝머리에서 질문을 하고 문장 전체가 그 질문의 답이 되는 자문자답법이고, 두 번째 유형은 문장 속에 질문과 답을 포함하는 자문자답법이다.

문장의 끝머리에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문장 전체가 되는 유형의 자문자답법은 일반적으로 질문에 논지를 내포시키고 문장 전체에서 그 질문에 대해 논증한다. 이는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20) 김원중, 앞의 논문, 109쪽.

21) 韓非子(著), 張覺(譯著), 앞의 책, 491쪽, “龐恭與太子質於邯鄲, 謂魏王曰: 今一人言市有虎, 王信之乎? 曰: 不信. 二人言市有虎, 王信之乎? 曰: 不信. 三人言市有虎, 王信之乎? 王曰: 寡人信之. 龐恭曰: 夫市之無虎也明矣, 然而三人言而成虎. 今邯鄲之去魏也遠於市, 議臣者過於三人, 願王察之. 龐恭從邯鄲反, 竟不得見.”

22) 위의 책, 472쪽, “觀聽不參則誠不聞.”

23) 김옥동, 앞의 책, 309쪽.

뿐만 아니라, “말은 평이하나 내포된 뜻이 매우 심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므로 독자들에게 감렬한 인상을 남긴다.”²⁴⁾ 이러한 유형의 자문자답법은 대부분 「십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 그 예를 살펴보자.

어떤 것을 도성을 떠나 먼 곳으로 유람을 간다고 말하는가? 옛날에 제경공이 바닷가로 유람을 가서 이것을 즐겼다. 그리고 대부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돌아가자고 건의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안락취가 말하기를 “군주께서 바닷가에서 유람을 하며 즐기시지만, 만약 신하들 중에 나라 권력을 탐내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군주께서 비록 지금은 즐거워하시지만, 장차 어찌 이러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간하였다. 제경공이 말하기를 “내가 명령을 내려 돌아가자고 건의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으니 지금 자네는 내가 내린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다.”라고 하며 과를 손에 잡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안락취가 말하기를 “옛날에 걸이 관용봉을 죽이고, 주가 왕자 비간을 죽였는데, 지금 군주께서 설령 저를 죽이고, 저를 관용봉, 비간과 함께 세 번째 사례로 되게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건의한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며 목을 내밀고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군주께서 저를 죽이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경공이 과를 버리고 마부를 재촉하여 돌아갔다. 삼일 후에 도성 사람 중에 제경공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자 도모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므로 제경공이 제나라의 통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안락취의 힘 때문이었다.²⁵⁾

위의 문장에서는 자문자답법을 사용하여 군주가 범할 수 있는 과오인 “도성을 멀리 떠나 멀리 유람을 가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길이다.”²⁶⁾ 우의를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한비자는 먼저 문장의 끝머리 부분에서 “奚謂離內遠遊?”이라는 질문을 하여 논지를 밝힌다. 이는 자연스럽게 왜 그러한지를 알고 싶어 하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 간단한 질문에 이미 한비자의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내포하였으므로 독자들이 이로부터 이야기의 전모를 알 수 있게 하여 이야기의 전개에 강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아울러 문장의 끝머리에서 이미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므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 전개되는 이야기에 심취하게 하고 깊이 생각을 하게 한다. 이는 또한 화자가 우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알기 쉽게 하여 작품의 설득력을 향상시킨다.

문장 속에 질문과 답을 포함하는 유형의 자문자답법은 주로 「儲說」과 「說林」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자문자답법은 문장의 끝머리에서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질문을 한다. 이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내포하게 하여 알기 쉽게 한다. 그럼 그 예를 살펴보자.

24) 楊鴻儒 著, 앞의 책, 305쪽, “言近旨遠, 發人深醒, 給讀者留下深刻的印象.”

25) 韓非子(著), 張覺(譯著), 『韓非子全譯』, 「十過」,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2, 144쪽, “昔者齊景公遊於海而樂之. 號令諸大夫曰: 言歸者死. 顏涿聚曰: 君遊海而樂之, 奈臣有圖國者何? 君雖樂之, 將安得. 齊景公曰: 寡人布令曰言歸者死, 今子犯寡人之令, 援戈將擊之. 顏涿聚曰: 昔桀殺關龍逢而紂殺王子比幹, 今君雖殺臣之身以三之可也. 臣言爲國, 非爲身也. 延頸而前曰: 君擊之矣! 君乃釋戈趣駕而歸. 至三日, 而聞國人有謀不內齊景公者矣. 齊景公所以遂有齊國者, 顏涿聚之力也.”

26) 위의 책, 144쪽, “離內遠遊, 則危身之道也.”

정곽군이 설에 성을 쌓고자 하였는데, 식객 중에 그것을 말리는 자가 많았다. 정곽군은 알자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식객을 위하여 전갈하지 말거라.”라고 하였다. 제나라 사람 중에 뱀기를 청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저에게 단지 세 마디만 말하게 해주십시오. 세 마디를 초과하면 저를 삶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정곽군은 그를 만나 보았다. 식객이 종종걸음으로 다가 “바다의 큰 물고기.”라고 말하고 물러났다. 정곽군이 말하기를 “그 설명을 듣고 싶네.”라고 하였다. 식객이 말하기를 “저는 감히 죽음을 장난으로 여기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정곽군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 그것을 말해 주도록 부탁하네.”라고 하였다. 그래서 식객이 대답하기를 “군께서는 큰 물고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그물로도 잡을 수 없고, 주살로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뛰어 나오면 뱀강아지나 개미들에게도 꿈쩍 못 합니다. 지금 제나라는 군께 있어 역시 바다와 같습니다. 군께서 제나라를 오래 가지고 계신다면 설이 어찌 문제가 되겠습니까. 군께서 제나라를 잃게 된다면 비록 설에 쌓은 성이 하늘에 닿도록 높더라도 오히려 이득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정곽군이 말하기를 “좋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을 쌓는 계획을) 그만두고, 설에 성을 쌓지 않았다.²⁷⁾

위의 문장에서는 문장 속에 질문과 답을 포함하는 유형의 자문자답법과 비유법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군주가 권세를 잃으면 바다를 떠난 큰 물고기와 같다.”는 우의를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한비자는 먼저 정곽군이 설에 성을 쌓고자 하나 식객들이 이를 말렸다는 이야기의 배경을 소개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식객의 입을 빌어 “君聞大魚乎?”라는 질문으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답을 물고기의 사례를 빌어 식객이 스스로 제시하게 한다. 정곽군을 큰 물고기에 비유하고 제나라를 바다에 비유하여 정곽군이 제나라를 가지면 “網不能止, 繳不能絀”하는 것 같지만, 제 나라를 잃으면 “蕩而失水, 螻蟻得意”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군주가 권세를 잃으면 바다를 떠난 큰 물고기와 같다는 이치를 깨닫게 한다. 이러한 생동감 있는 묘사는 “딱딱해 보이는 그의 정론문에 활력을 불어 넣는 문학적 장치”²⁸⁾가 된다.

문답법은 일반적인 질문과 다르게 “의문이 있어서 질문’ 혹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전달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사방식이다.”²⁹⁾ 그러므로 단지 상대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명료하고 알기 쉬운 질문으로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문답법은 제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글쓰기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한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사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는 선후 순서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구성이 치밀하고 글이 유창하여 『한비자』 우언의 설득력을 향상시킨다.

27) 韓非子(著), 張覺(譯著), 앞의 책, 418쪽, “靖郭君將城薛, 客多以諫者. 靖郭君謂謁者曰: 毋爲客通. 齊人有請見者曰: 臣請三言而已. 過三言, 臣請烹. 靖郭君因見之. 客趨進曰: 海大魚. 因反走. 靖郭君曰: 請聞其說. 客曰: 臣不敢以死爲戲. 靖郭君曰: 愿爲寡人言之. 客曰: 君聞大魚乎? 網不能止, 繳不能絀也, 蕩而失水, 螻蟻得意焉. 今夫齊亦君之海也. 君長有齊, 奚以薛爲? 君失齊, 雖隆薛城至於天, 猶無益也. 靖郭君曰: 善. 乃輟, 不城薛.”

28) 김원중, 앞의 논문, 104쪽.

29) 楊鴻儒 著, 앞의 책, 304쪽, “不是這樣的‘有疑而問’或‘不知而問’, 而是爲了增強語言的表達效果的一種修辭方式.”

V. 連鎖法

“連鎖法은 앞의 낱말이나 어구 또는 문장을 뒤에서 다시 받아 사용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이 수사법은 한 시행이나 문장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시행과 시행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앞 연과 뒷 연 그리고 앞 단락과 뒷 단락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³⁰⁾

문헌적인 기록에 의하면 연쇄법은 서주시대 『詩經·大雅·既醉』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춘추전국시대이다.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연쇄법의 시가적인 감흥과 점증적인 효과는 논변의 설득력 향상에 고민하던 제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연쇄법의 시가적인 감흥과 점증적인 효과는 논리를 치밀하고 질서 정연하게 논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제자산문의 취미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연쇄법은 『道德經』·『論語』·『墨子』·『한비자』 등에서 논리를 논증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 중에서 『도덕경』의 연쇄법이 가장 세련되었다. 『한비자』에서도 연쇄법은 설득력 향상의 효과로 인하여 자주 사용하게 된다.

『한비자』의 법가사상은 신도의 세·신불해의 술·상양의 법·노자의 道·순자의 性惡說·묵자의 공리주의적 사상 등을 수용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이 중에서 법가와 황로학파의 밀접한 연관으로 인하여 『한비자』는 비단 도가사상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자가 잘 사용한 연쇄법도 계승하게 된다. 이는 『한비자』에서 사용한 연쇄법이 일반적으로 노자의 도가사상을 전문적으로 다룬 「해로」, 「유로」에 집중된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한비자』의 우언에서 사용된 연쇄법은 일반적으로 단어연쇄법·구절연쇄법·단락연쇄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단어연쇄법은 동일한 구절 속에서 앞 단어의 끝 부분을 다음 단어의 첫 부분에서 이어받는 수사법이다. 그럼 그 예를 살펴보자.

도에는 축적이 있으며, 축적이 있으면 효과가 있게 된다. 덕이란 도의 효과를 말하는데, 효과에는 실질적인 것이 있으며, 실질적인 것이 있으면 빛이 있다. 인이란 덕의 빛을 말하는데, 빛에는 윤기가 있으며, 윤기는 나타내는 일이 있다. 의란 인이 나타내는 일을 말하는데, 나타내는 일에는 예가 있으며, 예는 문채가 있다. 예란 의의 문채를 말한다. 그러므로 『노자』에 말하기를 “도를 잃게 되면 덕을 잃게 되고, 덕을 잃게 되면 인을 잃게 되며, 인을 잃게 되면 의를 잃게 되고, 의를 잃게 되면 예를 잃게 된다.”라고 하였다.³¹⁾

위의 문장에서 한비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연쇄법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노자의 도·덕·인·의·예에 대한 해석을 자신의 법가사상에 입각하여 재해석하였다. 여기에서 “道有積而積有功”·“功有實而實有光”·“光有

30) 김옥동, 앞의 책, 265쪽.

31) 韓非子(著), 張覺(譯著), 『韓非子全譯』, 「解老」,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2, 276~277쪽, “道有積而積有功; 德者, 道之功. 功有實而實有光; 仁者, 德之光. 光有澤而澤有事; 義者, 仁之事也. 事有禮而禮有文; 禮者, 義之文也. 故曰: 失道而後失德, 失德而後失仁, 失仁而後失義, 失義而後失禮.”

澤而澤有事”·“事有禮而禮有文”은 동일한 구절 속에서 앞 단어의 끝 부분인 “積”·“實”·“澤”·“禮”를 다음 단어의 첫 부분에서 이어받는 단어연쇄법이다. “道之功. 功有實而實有光”·“德之光. 光有澤而澤有事”·“仁之事也. 事有禮而禮有文”은 앞 단락의 끝 부분인 “功”·“光”·“事”를 다음 단락의 첫 부분에서 이어받는 단락연쇄법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연쇄법에 대한 조화로운 사용은 『한비자』의 우언을 “구성이 빈틈없고, 앞뒤가 맞물리며, 말에서 느껴지는 힘이 연결되고, 음률이 아름답게”³²⁾ 하여 전달 효과가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형식미도 풍부하게 한다.

2. 구절연쇄법은 앞 구절의 끝 부분을 다음 구절의 첫 부분에서 이어받는 수사법이다. 그럼 그 예를 살펴보자.

은의 법에 의하면 길거리에 재를 버리는 자는 형벌을 가하게 되어 있다. 자공은 이 법이 중하다고 생각하여 공자에게 물어보았다. 공자가 말하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재를 길거리에 버리면 반드시 사람의 몸에 뒤집어 쓰일 것이고, 사람의 몸에 뒤집어 쓰인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화낼 것이며, 화내면 다투게 되며, 다투게 되면 반드시 가족끼리 서로 해치게 된다. 이는 가족을 해치는 행위가므로 형벌을 가하더라도 받아들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중벌이란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며, 재를 버리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게 하고, 싫어하는 것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방법이다.”라고 하였다.³³⁾

위의 문장에서 한비자는 연쇄법의 사용을 통하여 “군주가 너무 어질면 법이 서지 않으며, 군주가 위엄이 부족하면 신하가 위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형벌을 확실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금령이 실행되지 않는다.”³⁴⁾ 는 우의를 역설하였다. 여기에서 구절연쇄법을 사용한 문장은 “棄灰於街必掩人, 掩人, 人必怒, 怒則鬥, 鬥必三族相殘也”로, 앞 구절의 끝 부분인 “掩人”·“怒”·“鬥”를 각각 다음 구절의 첫 부분에서 이어받아 시가적인 감흥으로 길거리에 버려진 재로 인하여 가족끼리 서로 해치게 된다는 내용을 재미있게 설명하였다. 이는 문장에 묘미를 갖게 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을 향상시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우언에서 한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인 중벌에 관한 관점을 받아들이기 쉽게 한다.

3. 단락연쇄법은 앞 단락의 끝 부분을 다음 단락의 첫 부분에서 이어받는 수사법이다. 그럼 그 예를 살펴보자.

위문후가 조나라에 길을 빌려서 중산을 공격하고자 하였다. 조숙후는 거절하려고 하였다. 조각이 말하기를 “군께서 생각을 잘못하셨습니다. 위나라가 중산을 공격하여 탈취할 수 없다면 위나라는 반드시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피폐하게 되면 위나라의 지위는 낮아지게 되고, 위나라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

32) 楊鴻儒 著, 앞의 책, 418쪽, “結構嚴密, 上下銜接, 語勢貫通, 音律優美.”

33) 韓非子(著), 張覺(譯著), 앞의 책, 495쪽, “殷之法, 刑棄灰於街者. 子貢以爲重, 問之仲尼. 仲尼曰: 知治之道也. 夫棄灰於街必掩人, 掩人, 人必怒, 怒則鬥, 鬥必三族相殘也. 此殘三族之道也, 雖刑之可也. 且夫重罰者, 人之所惡也; 而無棄灰, 人之所易也. 使人行之所易, 而無難所惡, 此治之道也.”

34) 위의 책, 474쪽, “愛多者則法不立, 威寡者則下侵上. 是以刑罰不必則禁令不行.”

면 조나라의 지위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위나라가 중산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조나라를 지나 가서 중산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부리는 것은 위나라이지만, 토지를 얻는 것은 조나라입니다. 군계서는 필히 허락하십시오. 이 일을 허락하더라도 좋아하는 기색을 드러낸다면 그들은 군계서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니 반드시 중산을 공격하는 것을 그만 둘 것입니다. 군계서 차라리 길을 빌려 주실 때 마지못해서 응하는 것처럼 보이십시오.”라고 하였다.³⁵⁾

위의 문장에서 한비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연쇄법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군주는 이해가 집중되는 수레바퀴 중심과 같으니 사리를 도모하기 위해 노리는 신하가 많으므로 군주는 신하들이 노리는 표적이다. 그러므로 군주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드러나면 신하들은 이에 근거하여 군주에게 영합하므로 군주는 속임을 당하게 된다.”³⁶⁾ 우의를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則魏必罷, 罷則魏輕”은 단락연쇄법을 사용한 문장으로, 앞 단락의 끝 부분인 “罷”를 다음 단락의 첫 부분에서 이어받는다. 그리고 “罷則魏輕, 魏輕則趙重”은 구절연쇄법으로, 앞 구절의 끝 부분인 “魏輕”을 다음 구절의 첫 부분에서 이어받는다. 이는 “이치를 빈틈없고 치밀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물의 내재적인 연결을 보다 훌륭히 반영할 수 있고, 사물 상호 간의 변증관계를 밝힐 수 있어”³⁷⁾ 설득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비자』가 연쇄법을 사용한 것은 앞의 낱말이나 어구 또는 문장을 뒤에서 다시 받아 사용하는 시가적인 리듬 속에서 사물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관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연쇄법은 “글뜻의 긴밀한 연결과 어조의 추이에 모미를 갖게 하는 데에 효과”³⁸⁾ 있다. 이는 『한비자』의 우언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인 법가적인 이치를 시가적인 감흥 속에서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VI. 結 論

『한비자』 우언이 사용한 수사법은 매우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대상으로 소외되었던 의인법·열거법·문답법·연쇄법 등 네 가지 유형의 수사법에 대해 고찰을 진행하였다.

첫째, 의인법은 현실성과 실용성이 결핍하다는 단점으로 인하여 『한비자』의 우언에서 가장 적게 사용된 수사법이다. 그러나 의인법의 사용은 추상적인 법가사상을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강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열거법은 시가적인 리듬감이 있어 『한비자』의 우언을 내용적으로 흥미롭게 하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조리가 있게 설명할 수 있어 설득력이 매우 강하다.

35) 韓非子(著), 張覺(譯著), 앞의 책, 368쪽, “魏文侯借道於趙而攻中山, 趙肅侯將不許. 趙刻曰: 君過矣. 魏攻中山而弗能取, 則魏必罷. 罷則魏輕, 魏輕則趙重. 魏拔中山, 必不能越趙而有中山也. 是用兵者魏也, 而得地者趙也. 君必許之. 許之而大歡, 彼將知君利之也, 必將輟行. 君不如借之道, 示以不得已也.”

36) 韓非子(著), 張覺(譯著), 『韓非子全譯』, 「外儲說右上」,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695~696쪽, “人主者, 利害之輶轂也, 射者衆, 故人主共矣. 是以好惡見則下有因, 而人主惑矣.”

37) 楊鴻儒 著, 앞의 책, 420쪽, “能夠把道理說得嚴密透徹, 更好地反映事物的內在聯系, 闡明事物相互間的辯證關係.”

38) 황송문, 『문장론-그 이론과 실제』, 국학자료원, 2007, 348쪽.

셋째, 문답법은 諸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한 수사법일 뿐만 아니라, 『한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수사법 중의 하나이다. 이는 질문이 간단명료하고 선후 순서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구성이 치밀하고 글이 유창하여 『한비자』 우언의 설득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연쇄법은 시가적인 미감으로 문장에 묘미를 갖게 하는 수사법이다. 이는 논지를 치밀하고 질서 정연하게 논증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가적인 감흥과 점증적인 효과로 『한비자』 우언의 취미성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이상과 같이 수사법이라는 기교적인 글쓰기 방법은 추상적인 법가사상의 설득력을 향상시켜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한비자』 우언의 취미성도 향상시킨다. 이는 또한 『한비자』의 우언이 선진우언을 대표하게 하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본고에서 고찰한 의인법·열거법·문답법·연쇄법 등 수사법은 비록 한 『한비자』가 사용한 수사법의 일 부분이지만, 이를 통해 당시의 수사법 사용현상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參考文獻〉

- 김옥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미음사, 2002.
 황송문, 『문장론-그 이론과 실제』, 국학자료원, 2007.
 辛菊 編著, 『現代漢語語法修辭研究』, 太原: 書海出版社, 2003.
 楊鴻儒, 『當代中國修辭學』, 北京: 中國世界語出版社, 1997.
 韓非子(著), 張覺(譯著), 『韓非子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2.
 周靖, 『現代漢語』,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5.
 김원중, 「『韓非子』를 통해서 본 韓非子の 글쓰기 전략에 관한 몇 가지 검토」, 『중국학논총』 49, 2016.
 문승용, 「韓非子에 나타난 修辭意識의 形成 淵源 考」, 『수사학』 16, 2012.
 송승아, 「『韓非子』 寓言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지혜, 「『한비자』 우언에 나타난 표현기법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熊浩莉, 「『韓非子』 比喻類型探析」, 『重慶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 2013.
 章滄授, 「論韓非子的說理藝術」, 『阜陽師院學報(社會科學版)』 2, 1987.
 陳強倬, 「『韓非子』說理修辭 研究」, 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 이 논문은 2017년 8월 24일에 투고되어,
 2017년 9월 13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8년 1월 1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월 22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Some Rhetorics in Han Fei Tzu's Allegories

Han, Yongjie

Han Fei Tzu's allegory was able to be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work of advanced allegory due to the close influence of the use of diverse rhetoric.

It is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that rhetoric was first used actively i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In order to win the ideology debate in free discussions, the disciples used lots of allegory that can explain abstract logic convincingly. Also, the disciples used rhetoric diversely to enhance the power of delivery and persuasive power by embellishing sentences and making the content interesting. Of those disciples, Han Fei Tzu and Chang-tzu were the ones who used rhetoric relatively skillfully. Particularly, the rhetoric that Han Fei Tzu used was very diverse and artful and this made the dignity and the point of Han Fei Tzu's allegory diverse and sharp. It also made sentences not only interesting and beautiful but also rich in artistry. Particularly, the type of rhetoric that Han Fei Tzu used can be said to be definitely the most type used among the disciples.

Accordingly, a study on the rhetoric that Han Fei Tzu used in allegory has significance in that, despite the fact that *Han Fei Tzu* is a philosophy book, it enables us not only to understand the reasons that Han Fei Tzu achieved high outcome in literature but also to get a sense of the phenomenon of using rhetoric in those days.

[Key Words] Han Fei Tzu's allegory, rhetoric, personification, enumeration method, questionnaire method, chain method

* Ph.D. Candidate, Kookmin University

